"빚없는 무안 새 도약…남악신도시 활성화로 시 승격 추진"

민선 6기 2년 설계
김 철 주 무안군수

22년만에 인구 8만명 회복 뿌듯
무안읍 2만 이상 자족도시 만들 것
231㎞ 해안관광 일주도로 건설

김철주 무안군수는 "민선 6기 1년은 무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이제부터는 무안이 본격적으로 비상할 때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양파가격 불안정, 한·중,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 협정) 체결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안 황토랑 양파·한우 융·복합 특구지정 ▲개발촉진지구사업 착수 ▲해안관광도로(32.4㎞) 국지도 승격 ▲22년 만에 인구 8만명 회복 등 무안 발전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김 군수는 "8만 군민과 600여 공직자가 함께 고통분담 한 결과 양파가격 불안정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426억원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해 채무를 제로(Zero)화 했고, 2년 연속 1000억원의 국비 확보와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3년 연속선정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4000억원대의 예산규모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군은 민선 6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지방채 제로화를 이뤘다. 앞으로 군정 현안사업중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발행하고, 불필요한 지방채는 발행을 억제해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기관평가에서도 6년 연속 '황토랑 쌀'의 브랜드 쌀 선정과 3년 연속 복지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투자유치 서비스 우수, 지역브랜드대상 등 총 25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난해보다 1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더 지원받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설군(設郡)이래 처음으로 전남도 체육대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전남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0월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앞두고 있다.

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남악신도시 원스톱 서비스 기반확충 ▲무안읍 2만이상 자족도시 프로젝트를 양대 축(軸)으로 추진한다.

또한 군은 영산강과 승달산, 회산 백련지를 연계한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회산연꽃방죽을 중심으로 영산강을 따라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어 지역의 또 다른 성장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청계에서 몽탄을 잇는 '영산강~승달산 만남의 길'(사업비 180억원)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영산강 전통뱃길 복원과 분청사기 명장(名匠)전시관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군은 삼향읍 마동~해제면 도리포에 이르는 231㎞ 길이의 해안관광 일주도로를 추진하고 있다.

김 군수는 "해안도로가 개설되면 무안 도리포와 영광 염산을 연결하면 칠산대교 개통과 동시에 영광 백수 해안도로와 연결돼 전국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명품 해안도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현안사업으로는 시(市) 승격과 남악신도시 및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서로 묶여 있는 복합적인 현안이기도 하다. 호남고속철도가 무안 국제공항을 경유하면 공항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고, 비 남악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군수는 "남악신도시와 무안 공항이 활성화되면 시 승격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며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돼야 하고, 늘어난 인구가 자급자족하는 산업단지나 공단, 행정타운 등이 크게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대로 오룡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2018년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도·농 복합시 승격요건을 충분히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와 별개로 인구증가를 기다리기보다는 도청소재지 군 지역으로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시 승격운동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남악=임동현기자 idh@

연꽃향기 찾아 떠나요…무안 연꽃축제 내달 13~16일 개최

소망 풍등 날리기 등 행사 다채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무안 연꽃축제'가 8월13일부터 16일까지 동양최대의 백련자생지인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개최된다.

'연꽃향기 찾아 떠나는 무안여행'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개막 축하공연과 연꽃 소망풍등 날리기, 연극 품바공연, 군민 어울림마당, 군민노래자랑, 향토예술단체 공연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축제 첫날 열리는 개막행사는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부부 9쌍을 대상으로 금혼식(金婚式)을 연다. 금혼식은 무안의 상징인 연꽃의 영원한 사랑 '백년해로'(偕老) 의미를 담아 지난해에 이어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은 '소망풍등 날리기' 행사이다. 개막식 당일 10만평의 광활한 회산백련지의 밤하늘에 수많은 '소망풍등'을 날려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연꽃축제가 뜨거운 혹서기에 열림에 따라 '얼음 이글루'체험을 비롯해 '얼음위에서 활쏘기'체험, '구슬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 등 얼음을 활용한 시원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연꽃차 무료시음'을 비롯해 연공예품 만들기, 연꽃 향비누, 연향초, 연꽃 컵받침대 만들기 등 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넓직한 축제 행사장 곳곳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꽃그늘 터널길'을 비롯해 '우산 그늘길', '안개 분수길', '하늘 현수막 길'을 마련했다.

연꽃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신비의 연꽃 길 보트탐사'는 이달말부터 축제가 끝난 이후까지 운영한다.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보트를 타고 이색적인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비롯해 전국 명품코스 힐링 걷기대회, 청소년 페스티벌, 우리꽃 무궁화 축제 등 축제속의 또 다른 축제가 함께 열린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바다숲 조성·미생물 이용 새우 양식 기술 보급을"

주윤덕 신안군의원 주장

바다숲 조성사업과 미생물을 이용한 새우양식으로 신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안군의회 주윤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44회 1차 정례회에서 "소득이 높은 미생물 새우양식의 기술보급과 민어·부서 등 각종 수산물이 서식할 수 있는 바다숲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378㎢의 갯벌과 1만2176㎢의 공유수면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군은 총소득 7500억원 중 50% 이상인 4000억원을 수산물에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온 등 연안 환경변화로 인해 매년 어획량이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비해 바다숲 조성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주 의원은 "특히 전국 생산량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양식새우는 종묘배양장이 하나도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태안과 서천 등지에서 새우종묘 1억5000만미(12억원)를 구입하고 있지만 종묘 부족으로 신안지역 새우입식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생물을 새우와 함께 기르는 새로운 양식기술(바이오 플락=BioFloc)을 조속히 도입해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2016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해양수산부)공모에 응모했으나 기술력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며 "부족한 기술력 보완과 해결 과제인 초기시설 비용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양식기술을 도입·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생물 새우양식은 입식밀도가 높아야 하고, 유기물질이 많아야 하며 사육수 배출이 적고 질병 차단이 쉬우며 양식 생산성 향상이 장점이다. 반면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고, 유기물질 분해를 위한 영양과 산소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군·11개 기관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협약

무안군은 지난 15일 오승우 미술관에서 서남권 생활권역내 5개 시·군 교육지원청, 미술관, 박물관과 '취약지역 청소년문화체험'의 원활한 협력과 업무 추진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무안·목포·해남·신안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목포 자연사박물관장 등 사업 참여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무안군·목포시·해남·진도·신안군이 공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서 사업 참여 11개 기관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체험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 구성과 안전 문제 등 수준 높은 교육문화서비스 제공에 합의했다.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내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박물관 ▲미술관 힐링나들이 ▲골든벨 퀴즈대회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남악=임동현기자 idh@